

칼럼



장기채 주필

생산인구 감소는 강 건너 불 아니다

저출산·고령화의 파고가 거세다. 15~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선지도 오래다. 경제활력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국 경제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출산율 이대로 간다면 2100년에는 인구 절반이 노인 된다는 통계 수치가 나온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재앙을 코앞에 두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생산과 소비위축, 경제활력 저하로 잠재성장률은 추락

하고, 보장성 부담은 늘어나는 격랑에 빠지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1.21%의 출산율 때문이다. 또 지난 2019년 부터는 총 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뭘니 뭘니 해도 저조한 출산율일 것이다. 최근 10년간 출산율을 보면 그 수치가 엄청날 정도로 낮아지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거기다 2015년 우리나라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은 전년에 비해 각각 0.2세씩 증가해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집계 됐다.

최근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 84% (복수응답)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 (82.4%), '집 장만 등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77%)가 그 뒤를 이었다. 지속적으로 맞벌이 가정들이 늘어나고 당장 결혼하여도 아이를 가질 여유가 안되는지라 산모의 출산까지도 갈수록 늦춰지고 있다. 유아기 때부터 조기 교육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는 아이하나 성장시키려면 돈이 비교되는 수준으로 치솟은게 한국의 저조한 출산율

의 한 몫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에게 마음놓고 연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돈과 집 문제다. 무턱대고 일자리를 늘리기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임대주택과 주택 금융, 각종 세목을 점목시켜 평생 아이들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택 인프라 확충이야말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열쇠라는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는 젊은 인구의 도시유출 때문이기도 하다.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이었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는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대로 가면 2100년엔 노인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것이라는 '인구위기' 전망이다. 따라서 노인인구 급증과 일할 수 있는 인구 급감이 함께 진행되면서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된다. 생산 가능인구 100명이 먹여 살려야 하는 노인인구(노인부양비)는 2010년 15.2명이었다. 출산율이 답보상태면 2030년엔 노인부양비가 배 이상 증가해 38.7명이 된다. 2070년엔 젊은이 100명이 노인 99.1명을 2100년엔 108명을 먹여 살려야 할 정도가 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출산율을 2.1명까지는 끌어 올려야 한다. '출산율 2.1명 유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는 초저출산 시나리오보다 총 인구가 2087만명 많아지는 것이다. 인구 위기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 뿐이다. 또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해소는 물론이고 교육, 안전, 고용, 보건 복지 등의 영역을 개혁해 출산과 양육이 고통보다 즐거움과 희망을 안겨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봐야 한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과 맞물려 미래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도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임금과크제 도입같은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은 계속 고용 제도와 임금 파크제를 통해 정년연장의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인구 자체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사실에 귀 기울여야 한다. 생산인구 감소는 강 건너 불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아쉬움은 항상 우리 곁에

우리는 항상 아쉬움에 목말라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아쉬움이란 어떤 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것이 모자라거나 없어서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인데 마음 한구석에 차지 않는 그 무엇이 우리들을 궁하게 한다. 아쉬움은 완벽함과 상대적 관계이다. 아쉬움이 우리 곁에 다가오면 완벽이란 모습은 뒤편길로 숨는다. 완벽을 위해 우리는 긴 시간과 세월을 이겨내며 공들이고 목표의 결과물을 만들려고 무척이나 노력하면서 생활하지만 그 완벽한 결과물이 떨어졌다고 생각되면 대부분은 낙담으로 인생을 자책한다. 우리는 목표를 설정할 때 자기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를 설정해야 하는데 과한 목표설정으로 이루지 못하면 아쉬움과 괴로움으로 실망하지만 그럴 때면 우리는 그에 맞는 수정을 해가며 우리가 설정한 목표에 맞추어 가지만 뒤 틀린 것은 한 번의 빠거덕거림으로 우리가 설정한 목표와는 조금씩 멀어지게 한다. 우리가 설정한 목표는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목표와 견줄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때 즈음, 우리는 느끼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얼마나 달라질지 알 수 있는지 어쩌면 아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우리는 항상 아쉬움 속에 하루하루를 생활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의 아쉬움을 안고 살아간다. 자녀들의 취업성공과 실패로, 부모님의 건강함과 병마로, 직장에선 동료와 상사의 마찰로, 친구간의 사소한 이해로, 어느새 끝난 가족 여행 등 무수히 많은 아쉬움을 안고 생활한다. 우리들 생활 속에 조금만 생각하고 실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움 마음을 표현하지만 그때는 늦은 때인걸, 인생을 살면서 생각 했던 것처럼 모든 일이 실패처럼 풀리고 이루어진다면 삶의 묘미가 있겠는가. 생각지 못한 상황들 속에서 새롭고 가지 않는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네 삶과 인생에 묘미 아닐까 생각한다.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쉬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 만큼 완벽할 수 없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아쉬움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그림과 가슴 아파도 결코 보내고 싶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선 보내고 아쉬움 없고 후회된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종균/광주북부소방서 현장지휘담당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엔프레스